

5·18 추모 분위기 고조

초·중·고 선배 열사들 기리는 행사 잇따라 개최

5·18 묘지 참배객 크게 늘어 전남도, 자체 기념행사 마련 평화당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

39년 전 광주는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한 대동 세상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배고픈 시민군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었고, 혈액이 부족하다는 외침에 어른·학생 누구나 기꺼이 소매를 걷었다. 시민들은 경찰 대신 금융기관·관공서·상가 등을 지키며 범죄 없는 세상을 실현했다. 1980년 광주는 모두가 하나였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립5·18민주묘지에는 5월 들어 참배객이 전달 대비 3배 이상 늘고, 각 학교에서는 선배 열사들 기리는 기념프로그램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12일 국립5·18민주묘지에 따르면 5·18 민주묘지에는 이날 들어 참배객들이 연일 3000명을 넘는 등 전달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17·18일 전

후로 추모객들이 대거 몰릴 예정이어서 지난해 기준을 감안하면 5월 한달 동안 참배객은 약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급 학교에서도 선배 열사들을 조영하고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 살레시오고는 오는 18일 작은 음악회를 열어 39년 전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된 명예졸업생 김평용(당시 고2)군 등의 넋을 기린다.

1980년 5·18 때 시위에 가담했다 실종된 뒤 주검으로 발견된 양산군 군이 다녔던 숭의과학기술고는 오월길 역사기행, 현수막 제작과 함께 5·18 관련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5·18 골든벨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성용 군, 임옥환 군의 조선대부속고 후배들은 교내 추모공원 앞 바닥에 벽화를 제작하며 선배들을 기린다. 대동고도 전영진(당시 고3)군은 기리는 추모 꽃나무를 교내 추모비 주변에 심고, 시화전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전재수 군이 다녔던 효덕초고는 샌드애니메이션과 추모편지, 3행시 짓기 등을 통해 어린 희생자의

넋을 위로할 계획이다. 무등중, 송원고, 전남여상, 전남중, 조대부중, 동신중·고, 송원여상, 서광중 등도 추모행사에 동참한다.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전남도도 지난 30주년에 이어 9년 만에 자체 5·18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유족·전남 지역민을 초청해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목포역광장에서 '전라남도 5·18기념문화제'를 열고 풍물굿, 5·18영상상영, 5·18외국 규탄 결의문 낭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모 분위기는 오는 17~18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전야제가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고, 1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5·18진상규명!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망언의원 퇴출!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오는 15일 5·18민주광장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7~18일 5·18기념일 주요행사에 정동영 대표와 지도부가 대거 참여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21000호

광주일보 지령 21000호... 호남 일간지 중 최초 독자와 함께 술한 역경 이겨내며 지역 발전 견인

호남 언론의 상징인 광주일보가 13일로 지령 2만1000호를 맞았다. 그동안 광주일보는 지역민과 함께 술한 역경을 이겨내며, 지역 발전을 이끌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1952년 2월 11일자 창간호.

1952년 2월 10일 창간한 광주일보(옛 전남일보)는 조국 분단의 설움 속에 통일 과업과 국토 재건의 기치를 들고 정론을 펴며 호남 언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1960·70년 산업화 시대에는 뒤쳐진 지역의 현실을 알리며, 호남선과 호남고속도로 등 지역의 낙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에도 응했다. 4·19 민주혁명 당시 지방신문으로는 유례없이 이승만 독재를 통렬히 비판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는 편집국 기자들이 보도검열 철폐를 주장하며 10일간 신문 제작을 거부하기도 했다. 1980년 6월 2일 신문을 속간하면서 '민주시민의 긍지, 무등산은 알고 있다'는 기사를 송고해 엄혹한 현실에서도 진실을 알리려 했다.

광주일보의 또 다른 전신인 옛 전남매일신문(1960년 9월 26일 창간)의 기자들은, 지난 4월 5일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에서도 언급됐듯 1980년 5월 20일 양심에 담긴 공동사표 2만장을 호외로 뿌렸다. 호외에서 그들은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골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줄도 실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고 적었다.

1980년 12월 1일 신군부의 강제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이 통합, 지금의 광주일보로 재창간됐다. 이후 호남의 대표 일간지로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호남을 대변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갔다. 지방자치·지방분권시대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비전을 발굴·개척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왔다. 또 64년간 호남에 술제를 주조하고, 54년간 3·1절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체육행사를 이어오면서 애항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임을 증명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도 공헌했다.

광주일보는 앞으로도 ▲불편부당의 정론을 펴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섰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 등 사시(社是)를 지키며, 호남과 지역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다할 것을 다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황교안 한국당 대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할까

18일 5·18 39주년 기념식 참석 예정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등 '호남 민심 달래기' 조치 관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위해 광주를 찾았다가 광주 시민의 거센 항의를 마주한 지 보름만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송 방망이 징계와 5·18 진상조사위

원 추천 외면 등으로 이번 기념식에서 5·18 유가족 및 광주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재현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황 대표의 기념식 참석 이전에 5·18 진상조사위원을 재추천하는 등 호남 민심을 달래는 조치를 내놓지 않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 시민들 '헬기사격' 증언한다 ▶6면

배워서 남 주는 미디어 봉사단 S ▶18면

KIA, SK에 스윙패 다시 꼴찌 추락 ▶20면

이런 가운데 황 대표가 과연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지도 관심사다. 지난 2016년 5·18 기념식에서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는데 정부의 제창 불허 방침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시 입도 병긋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출된 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5년 새누리당(옛 한국당) 김무성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홍준표 당시 대표는 기념식에 불참했다. 2016년에는 정진석 대표 권한대행이, 2017년에는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각각 자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대와 미래를 위해서도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에 앞서 한국당이 5·18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입장권 구매 열기

판매액 14억원 돌파... 정보처리센터 구축 본격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60여일 앞두고 입장권 단체 구매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각종 통신서비스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처리센터(MDC) 구축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등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8면>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회를 60여일 앞둔 현재 입장권 판매액은 14억6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개별 판매도 진행되

고 있지만, 단체 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오전 전남도와 1억 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어 이후에는 국민은행이 1억2000만원, 농협이 300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증서 전달식을 각각 열었다. 입장권은 지난 1월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4월부터는 오프라인 판매에 돌입했다. 입장권은 조직위와 광주시청 메인 발

권센터를 비롯해 KTX 서울역, 용산역, 광주송정역 등 전국 주요 20개 KTX 철도역에서 판매 중이다.

이와함께 주관통신사인 주식회사 KT는 전남고객본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대해 정보처리센터(MDC)를 구축하고 있다.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각종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남부대 주 경기장과 여수 오픈 워터 경기장 등 5개 경기시설과 선수촌, 미디어촌에 통신 서비스가 시작된다. KT는 선수촌과 미디어촌, 경기장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관람객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남부대 주 경기장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통신망도 구축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음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키온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